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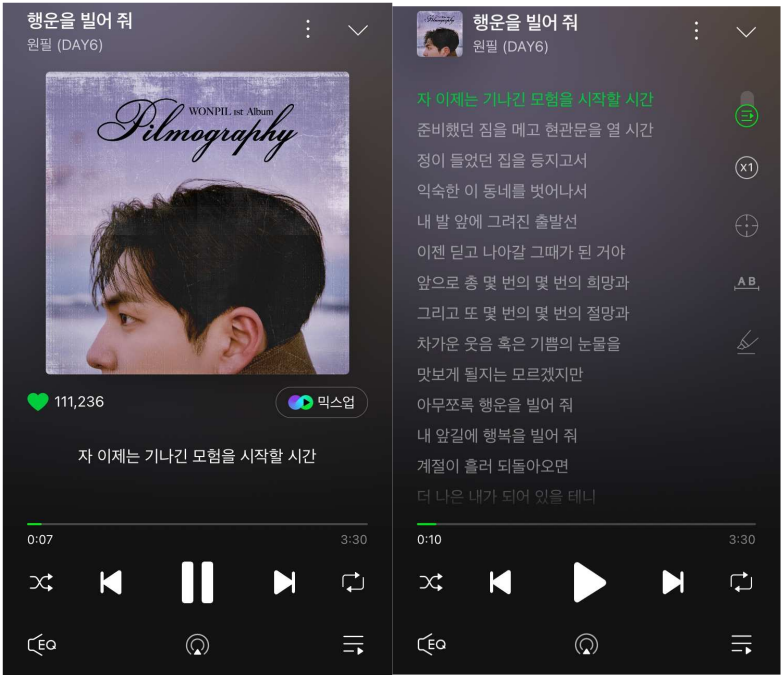
제 목	Sing Me: 이것은 데이식스 영업서입니다.		
소속 대학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	심리학과
학 번	2021****	이 름	민**
이메일		연락처	

① Intro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복학한 개강 첫날 아침이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동기들은 모두 졸업했고, 나만 이곳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다. 문을 열기 전이 가장 떨렸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출석 부를 때 목소리가 이상하면 어떡하지’ 등등의 사소한 걱정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차가운 손잡이가 미지근해질 때까지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다. 한숨을 쉬며 에어팟을 귀에 꽂았다.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좀 나아지겠지.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를 재생했다. 첫 가사가 이거였다.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그 순간, 나는 마치 홀린 듯이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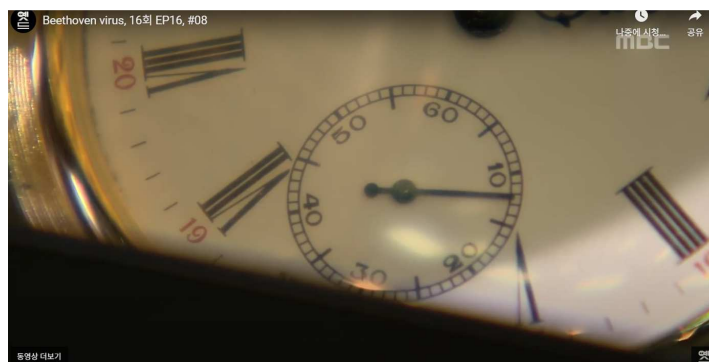
② Verse 1

음악은 힘이 있다. 분위기를 바꾸고 압도하는 힘이 분명히 있다.

대학교 수업 시간에 ‘음향 종속적’이란 개념을 처음 배웠다. 시각적인 영상보다 배경음 혹은 효과음으로 배치되는 청각적 음향효과에 훨씬 쉽게 압도당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음악은 지배적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리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귀와 감정을 지배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 가족들과 저녁에 모여서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봤었다. 내용은 흐릿하지만, 주인공이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곡을 연주하던 장면만은 뚜렷하게 기억이 난다.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 사람들이 웅성거리던, 정적 속 시끄러운 모습과 그 당황스러움. 마치 내가 그 공연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음악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리듬, 멜로디, 화음이 없어도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 처음으로 음악에 대해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음악이 단지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표현만을 뜻한다면, 우리는 이미 음악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음악을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시계 초침 소리, 코를 훌쩍이는 소리, 웃음소리나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음이나 박자가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어떤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음악’을 자각한 시점은 언제일까.

유치원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난 6살. 항상 잔뜩 심통이 나 있던 그때 엄마가 라디오 기기에 카세트테이프를 넣어 틀어주시던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떠오른다. 아침에 듣는 한줄기

클래식은, 정신없이 분주한 하루의 시작을 평온하게 가라앉혀주는 햇살 같았다. 그래서 요즘도 마음이 시끄러울 때 종종 찾아 듣고는 한다.

틈만 나면 불러주시던 아빠의 고드름, 산딸기, 소나무 같은 동요 메들리와 휘파람으로 간주. 그리고 자동차 뒷좌석에서 따라 부르던 모습도 선명히 기억난다. 26살인 지금도 가끔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동요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중학생 때부터는 언니, 오빠의 MP3를 물려받았다. 플레이리스트에는 4명의 취향이 뒤섞여 힙합, 발라드, 케이팝 등 거의 모든 장르가 몽땅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내 취향의 노래들을 더해갔다. 그때부터 나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마음에 들면 다 좋아했다. 특히 가사가 내 마음을 찰떡같이 표현해 줬을 때. 몇 번이고 반복 재생을 했다. 감정은 폭풍우가 치지만 표현은 서툰 사춘기에, 음악은 나를 공감해 주고 표현하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부모님과 싸운 뒤에 방에 틀어박혀서 빅뱅의 'blue'를 들으면서 울고, 짝사랑하는 친구가 생겼을 땐 악동뮤지션의 'Give Love'를 주아장천 들었다. 노래를 썩 잘 부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쯤부터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좌절하지 않고 내면의 음악을 표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었다.

처음 들었던 소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처음 만나게 된 음악들은 어렵פות이 기억난다. 그 순간의 감정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나에게 음악은, 감동과 재미로 다가왔다.

③ Pre-Chorus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다.

글자에 마음을 담아 음을 넣어 부른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쉬워 보이지만 듣는 것과 직접 부르는 것은 정말 다르다. 특출나게 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자신의 노래를 녹음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면 쉽게 알 수 있다. 가사와 음, 감정, 강약 조절 등등 신경 쓸 게 정말 많다. 우리가 쉽게 듣고 평가하게 되는 음악들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나왔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진정성 있는 가사를 좋아한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곳곳하게 소신을 지켜내며 담아낸 절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청중에게 단순히 던져버리는 듯한 음악이 아니라, 마치 편지를 쓰듯 한 줄 한 줄 고심해서 적어 내려간 듯한 가사가 내 플레이리스트의 합격 기준이 된다. 나에게 하는 말 같아서 담아두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음악이 좋다.

④ Chorus

그런데 삶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일단 나는 복학을 한 개강 첫

날 아침에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제시간에 일어나지 못했거나 더 불쾌하게 일어나야만 했을 것이다. 앞으로 수업을 들으러 가기 위해 한림대 언덕을 오를 때도 더 이상 노래 박자에 맞춰 가뿐하게 걸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아마도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 사이에서 적막하고 메마르게 살고 있지 않을까. 마치 평생 무반주 댄스를 추는 것 같은 삶일 것이다.

이처럼 음악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음악 없는 삶은 상상조차도 하기 싫을 것이다.

⑤ Interlude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뜬금없이 흘러들어온 음악 소리에서 그 힘이 느껴지기도 한다. 아침 1교시를 들으러 가는 등굣길에 방송에서 나오는 Mocca의 'Happy!'는 그날 날씨처럼 흐렸던 내 마음에, 하나의 붉은빛 달짝지근한 체리가 되어주었다. 교수님이 수업 시작 전에 틀어 주신 Selig의 'Knockin' on Heaven's door'은 짝 달혀 숨 쉴 틈이 없던 내 마음을 조심히 두드리고 갔다. 말은커녕 내 감정을 나도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 고심 끝에 그려 놓은 멜로디와 그 위에 꾸욱 눌러진 가사로 내 마음을 대변해 준다. 의도적으로 찾아 듣지 않는다 해도 어떻게든 음악은 돌고 돌아 우리를 찾아온다. 지쳐있을 때, 어느새 옆에 앉아 있는 음악에 기대게 되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⑥ Ver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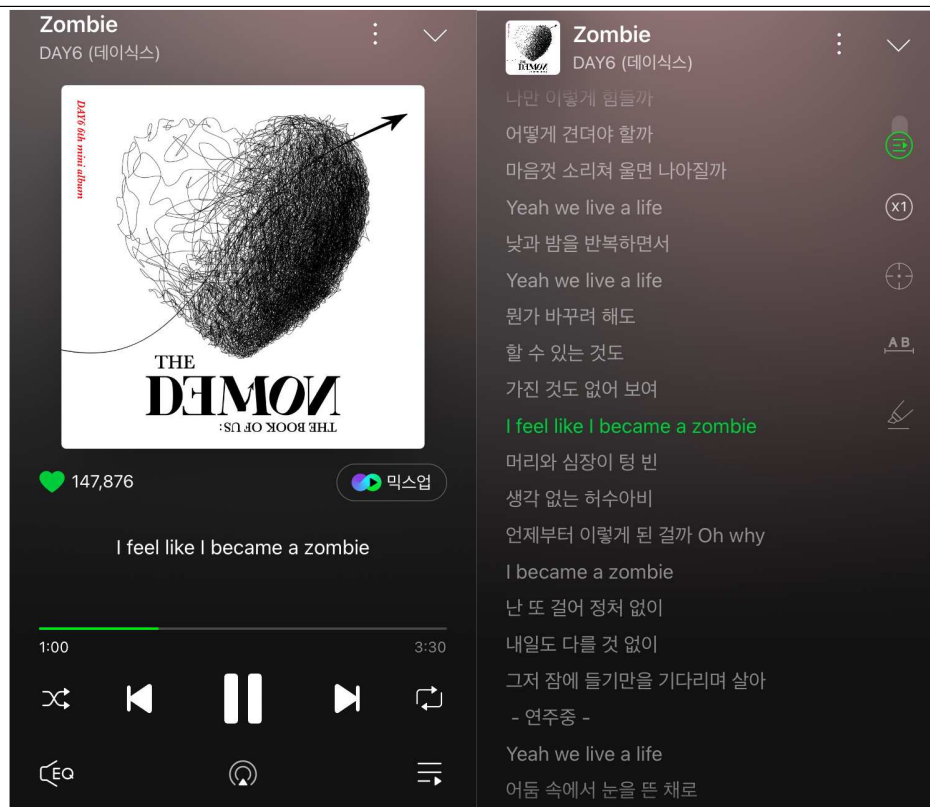
음악이 나를 이끌어주는 게 좋았다. 솔직한 감정 표현을 말로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나에게 춤은 감정과 음악 위에 얹힌 또 다른 화음이었다. 빠르고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겨 움직일 때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혼자서 틈만 나면 몸을 움직였고, 이 열정의 끝을 달려보고자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도 해보고 무대도 서봤다. 그 순간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음악과 움직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을 때 흘러내리는 땀방울은 마치 기쁨의 눈물과도 같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더 이상 춤을 출 수가 없었다.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돌아선 걸지도 모르겠다. 신곡이 나와도, 모두가 댄스 챌린지를 해도 심지어는 가장 좋아했던 춤 영상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신나던 음악조차 시끄럽게 들리기도 했다. 처음으로,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된 경험은 씁쓸함과 공허함을 남겼다. 야속하게도 서서히 춤은 잊혀 갔고, 마음이라는 숨은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라는 물에 젖어 나날이 무거워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 머리와 심장이 텅 빈 생각 없는 허수아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oh why?'

라는 문장이 귓가에 들려왔다. 데이식스의 'Zombie'라는 곡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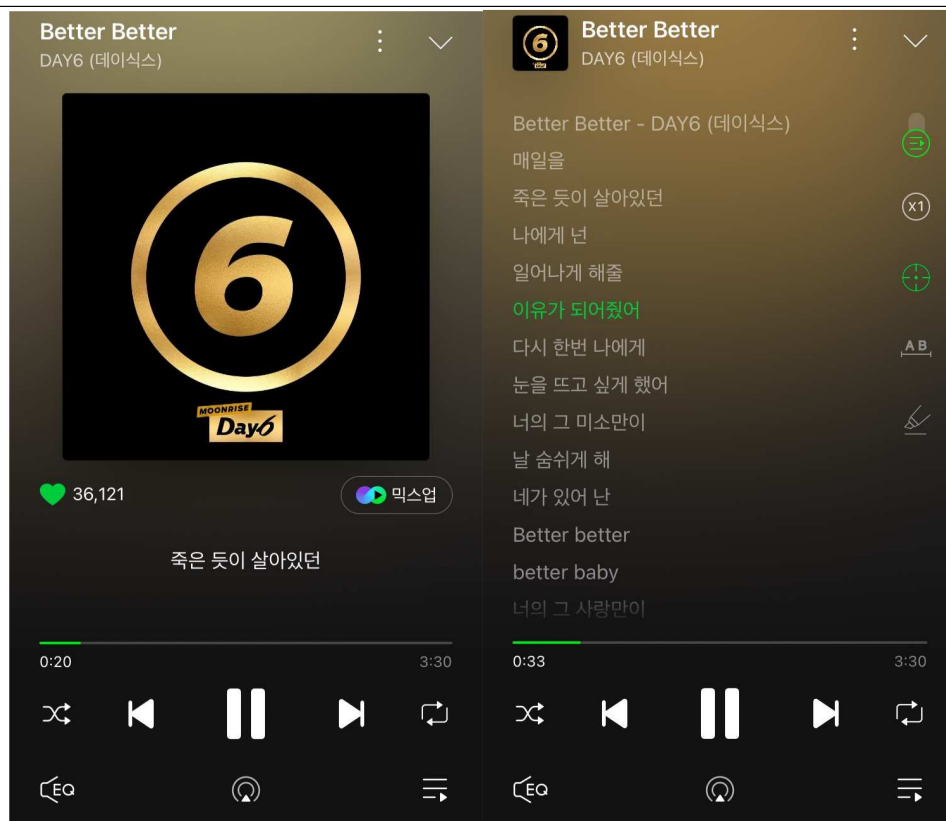
제목만 봤을 땐 강하고 짙 곳은 느낌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현대인들의 공허함을 좀비로 비유한 표현이었다. 휘황찬란한 음향효과나 기가 막힌 편치라인이 들어간 가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연주하는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이 노래에 공감하고 있음을 자각한 순간, 마치 잃어버렸던 음악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만을 위해 쓴 곡이 아닌데, 나를 위한 노래처럼 느껴졌다. 3~4분이라는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게 음악의 매력인 것 같다.

이제는 각자 이어폰을 끼고 자신만의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이다. 그래서 노래 도입부에 말을 거는 듯한 구성이 더 잘 와닿는다. 마치 영화나 연극에서 제4의 벽을 뚫고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처럼, 확 가까워지며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 후에 듣게 된 또 다른 데이식스의 노래 'Better Better'의

'매일을 죽은 듯이 살아있던 나에게 넌 일어나게 해줄 이유가 되어줬어 다시 한번 나에게 눈을 뜨고 싶게 했어'

라는 가사는, 막혀있던 음악이라는 감정의 통로가 다시 조금씩 뚫리고 있음을 느끼게 해줬다.



좋아한다고 꼭 그것으로 무언가를 이뤄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그 에너지를 받기만 해도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다. 음악에 지친 마음은 다시 음악에 의해 치유가 되었다. 결국 나는, 음악을 벗어날 수 없었다.

⑦ Bridge

음악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폭력적이지는 않다. 섬세하고 부드럽게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탄핵 시위 현장에 갈 수 있게 용기를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나도 잘 알고 있는 케이팝 노래들을 부르는 현장의 모습이였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날 처음 부대끼게 된 사람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같은 노래를 불렀다.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은 아직도 떠올리면 고동이 치고 떨어온다. 전례 없는 케이팝 시위는 음악을 타고 날아가 정곡을 찌르는 목소리가 되어준 것이다. 듣는 자에서 행위자로 나아가게 만들어줬다. 음악이 힘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한 원동력이 되어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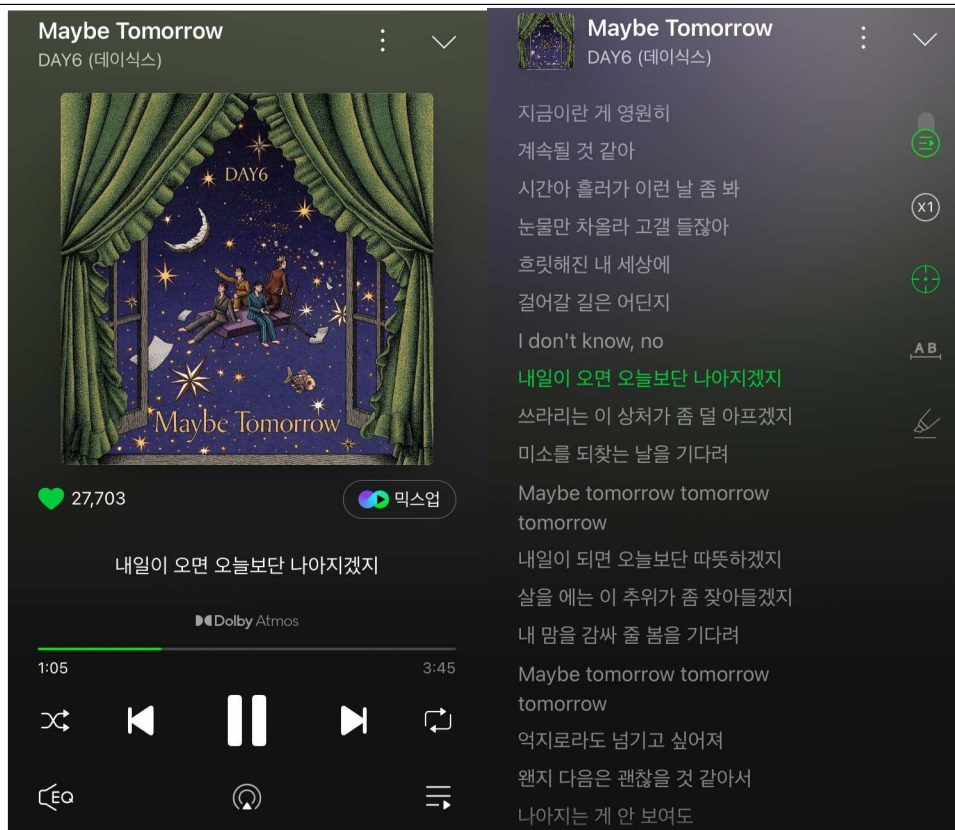
듣는 사람 그리고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작은 바람은,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소리인가 음악인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사의 유무를 떠나서, 소리가 단순하게 넓게 나열되며 자극되기보다 깊은 감정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지배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음악에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 적어도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내뱉을 수 있기를 바란다.

⑧ Outro

데이식스가 'Maybe Tomorrow'라는 타이틀로 컴백을 했다. 그렇다고 딱히 상황이 크게 변한 건 없다. 여전히 걱정이 많고 불안하며 고독하고 힘이 든다. 그래서 오늘도 음악을 듣는다.

‘내일이 오면 오늘보단 나아지겠지. 쓰라리는 이 상처가 좀 덜 아프겠지’

부디 내일도 음악이 힘을 발휘하길, 그렇게 삶이 음악이 되길 불러본다.



참고자료:

-노래가사 Melon뮤직 앱 캡처

-드라마‘베토벤바이러스’장면캡처

옛드:MBC옛날드라마<https://www.youtube.com/watch?v=udqR5q-X6bo>